

“여순사건, 유족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시급”

여수서 심포지엄 ... “제주 4·3사건 같이 진상규명·위령사업 이뤄져야”

한국군대사의 비극으로 손꼽히는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나마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에 노력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10년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추가 조사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12일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오후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월 김성곤 국회의원이 여야국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취

지와 필요성, 향후 과제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조훈 전 제주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제주 4·3특별법 제정과정과 4·3위원회 활동 성과, 박찬식 제주 4·3 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의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과정과 활동 성과, 김성곤 국회의원의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의 입법경위와 과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선 김득중 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 정호기 한국현대사학회연구소 연구위원,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1948년 정부수립 과정에서 여수·순

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 화합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일 지역사회 연구소소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사실상 여순사건 당시 피해규모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추모위령사업도 전혀 진척이 없어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국회의원은 “정치적 역사적 민감성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지만, 여순사건도 제주 4·3사건과 같은 수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



복, 위령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지난 10일 ‘여순 사건’ 희생자 정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총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희생자와 정씨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증하지 못하면 정황에 따라 동등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 인재 육성 32명에 장학금 2400만원

고흥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3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군은 저소득, 성적우수, 미래인재 등 6개 분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32명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병종 군수는 이날 “중앙에 진출해 있는 지역출신 공직자들이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 조성에 나서 지난 2011년 말 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한 뒤 200여원 조성을 목표로 재조성에 나섰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4대악 근절 치안협의회

보성경찰서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9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정중태 보성군수, 안길섭 군의회의장 등 기관·협력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보성군 지역 치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기관단체별 추진상황 보고와 마을별 CCTV 설치,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선진 교통문화 조기기정, 보성다향제 등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세단장 된 보성역

최근 준공된 보성역 광장 전경. 보성군은 1280㎡에 이르는 보성역 광장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를 확장하고 아간 조명 분수와 신규 승강장 등을 설치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북

남원, 청사내 지열 냉난방 설치

향후 25년간 20억 절약

남원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시청 내에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열 냉난방시설이란 지하수 및 지열 등의 온도차이를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설로, 지하층의 섭씨 10~20도의 열을 이용, 히트펌프를 통해 냉방과 난방의 냉온수를 생성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이다.

시에서는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 지방보급사업 공모사업을 선정했으며, 국비 50%, 도비 10%를 지원받아 모두 10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에 설치될 시설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 600kw급으로, 시는 시청 뒤편에 지열 열교환기 66공 설치 및 지열 히트펌프 4대, 축열조 탱크 등을 설치하고 있다.

공사는 이달 중 완공될 예정으로 시험가동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지열 설비는 축열조를 설치해 야간에 값싼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서 축열조에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열을 사용, 일반 방식보다 효율적인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83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향후 25년 정도 운영될 경우 약 20억 7000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원=백선자 기자 bs8787@



청소년 글짓기·그림그리기

이 없다. 이번 대회는 순창장류박물관 주변에서 산문부와 운문부로 나뉘어 열렸다.

순창문화원이 주관한 제11회 청소년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순창군 초·중·고생 200여명이 9일 오후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대회는 순창장류박물관 주변에서 산문부와 운문부로 나뉘어 열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 가축 풀사로 생산 확대 지원

올 재배면적 2742ha에 77억 투입

부안군이 가축사료용 풀사로 생산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군은 12일 “올해 쌀 수급 조절과 가축사료로 사용될 풀사로 생산 지원을 위해 국비 58억7400만원 등 총 77억 2200만원을 확보,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31개 조사료경영체와 1021여 개재농가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 청보리를 비롯한 풀사

료 수확·제조비와 풀사로 경영체 장비 및 생산장려금 지원, 부존자원 활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면적 2742ha에서 5만4840t의 조사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규모로 현재 생육 상황이 양호해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현재의 조사료 자급률 80%를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재배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축협과 경영체 대표, 읍·면 축산담당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산 풀사로 재배사업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풀사로 재배사업을 통해 가축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yj0681@

고창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선정

고창군은 12일 “환경부의 2013년 시범사업인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에 공모한 결과 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1억7500만원을 확보했

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오는 9월 중앙로와 동리로 일대의 가로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컷오프 등기구(광원 노출 저감효과) 및 고교

을 광원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 일대 가로등을 교체하면 인근 주택가의 빛 공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야간 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녹차 체험하러 보성 오세요

14일부터 다향녹차대축제

한·중·일 명차 선정대회도

대한민국 차문화 대표 축제인 제39회 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가 보성차밭 일원 한국차소리문화공원에서 14일 저녁 5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6일간의 여정으로 막이 오른다.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는 대한민국 최대의 녹차 주산지인 보성군이 고품질 녹차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추어 보성녹차 홍보와 차문화 보급 및 차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 녹차!’라는 주제로 주요 차문화 행사로는 14일 오후 2시 티월드 챔피언십 티테이블 전시를 시작으로 15일 다신제와 한중일 화장토 도자 국제학술심포지엄, 16일 차 밋내기, 차 밋내기, 다례시연

을 테마로 열리는 제2회 보성티아트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또 17일 한중일 명차 선정대회와 전국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무아차회, 18일 녹차 학교급식 및 차생활 활성화 워크숍 등이 개최된다.

군은 체험행사로 차 만들기과 차잎 따기, 찻차 무료시음, 다례시연, 찻사발 만들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차박물관, 세계차나무식물원, 녹차대축제 홍보관 관람 등을 통해 세계 차와 보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부대행사로는 전국학생녹차골프대회(15일), 다향백일장 및 사생대회(16일), 전국녹차사진촬영대회(17일), 백학기 교수의 녹차토크쇼(17일),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18일), 차밭 푸른음악회(18일), 보성녹차마라톤 대회(19일) 등이 열린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순천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행

박람회 관람객 도심 유도

순천시는 개장 20일 만에 78만 명이 다녀간 정원박람회 관람객 도심 유입을 위해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한다.

운행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0월20일까지로, 탑승료는 성인 1500원, 중고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원이며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다.

운행방법은 단방향 순환식으로 1일 6회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다.

운행코스는 정원박람회장 서문에서 출발 순천역, 빛 축제장, 아랫장, 문화의 거리, 웃장, 조례호수공원, 드라미촬영장을 거쳐 다시 정원박람회장으로 도착하는 코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순환관광버스는 순천의 맛 집과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있는 도심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의 도심유입과 함께 체류형 관광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단 신

고창 아동·여성연대, 성폭력 근절 캠페인

고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장 김인호)는 지난 9일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이영숙) 회원 및 관계 공무원, 고창경찰서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근절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공음 학원농장에서 진행 중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만들기 서명 운동’ 참여자는 500여명에 달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주보건소, 독거노인 무료관절 수술비 지원

전주보건소(소장 김경숙)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무료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9월 이후 수술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다.

이는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1회에 한해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 1인 최대 93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수술비 지원신청서, 수술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목기조합, 목공예 브랜드 ‘훈심’ 확정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에서는 최근 목공예 대표 브랜드 ‘훈심’을 발표했다.

‘훈심’이란 ‘장인들이 혼을 넣어 마음을 다하여 생산한 제품’이란 뜻으로, 지리산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더불어 사용되는 목재의 독특한 향과

함께 재질이 단단하고 모양이 정교하며 섬세한 남원목기를 대표하게 됐다.

조합 측은 브랜드 확정을 계기로 남원목공예의 자존심을 지키고, 목기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할 방침이다.

/남원=백선자 기자 bs8787@

전북, 하루 28.3쌍 결혼 11.4쌍 이혼

전북에서는 하루 28.3쌍이 결혼하고 11.4쌍이 이혼하며, 44.7명이 태어나고 37.5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로 본 전북의 모습 2013’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187만334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94만명(50.2%)을 차지, 남성보다 약간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는 30만3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해 여성과 노인을 위한 복지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분야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0만원대에 진입했으며 경제성장률도 4.7%로 전국(3.0%) 성장률을 웃돌았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